

NIE의 학업 효과에 관한 연구

Study of Academic Effect of NIE

황유선, 김재선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Yoosun Hwang(yshwang@joongbu.ac.kr), Jae Sun Kim(plkim@joongbu.ac.kr)

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이 위상은 무너지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NIE (Newspaper in Education)의 실질적 교육 효과를 분석했다. 신문을 학교 수업의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NIE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가에서 소개되며 학습 효과를 인정 받아온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NIE를 도입한 뒤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제로 NIE가 어떠한 학업적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안을 갖고 NIE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수업을 실시한 통제집단간의 학업 효과 차이를 확인했다. 그 결과 NIE 방식의 수업은 학업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과 흥미나 학업 태도에 대해서 NIE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했다.

■ 중심어 : | NIE | 공교육 | 사교육 | 학습 효과 |

Abstract

Recently, the status of public education has fallen and instead, the fever of private education ha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 Because of this private education,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effect of NIE (Newspaper in Education) which is expected to bring about some positive educational results.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North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NIE has already been introduced to schools. The educational effects of NIE has also been recognized. Korea also accepted NIE and expect positive educational effects. Therefore, the experimental study has been performed to prove the educational effect of NIE. Both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ere divided. After that, with the same study plan, experimental group studied with NIE method and control group studied with regular method. The results revealed that NIE method was effective to raise test scores. However, the subject interest and study attitude were not found to be related with the study method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 | NIE | Public Education | Private Education | Educational Effects |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열한 학업환경 속에서 소위 입시지옥의 생존경쟁을 감수하고 있다. 문제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다보니 이 역시 사회적 양극화의 양상으로 치달으며 부모의 재력이 곧 자녀의 학력으로 이어진다는 현실이다.¹ 공교육의 위상이 바로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뽀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난점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통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²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교육 풍토를 정착 시키고 건전한 사회적 소통을 장려할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학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학교 내에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에서는 신문사가 각 학교에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가 신문을 지식 습득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³ 국내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정부 기관의 주도로 신문 활용 교육 교사 양성 사업 및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문 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미디어 소비 경향을 보면 뉴스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신문보다는 영상 미디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더 자주 이용한다고 나타난다[1].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부모 가정 청소년인 경우 양 부모 가정환경의 청소년보다 신문 구독률이 더 낮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낮을 때에도 신문 구독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뿐 아니라, 학업 성적이 높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신문 구독 정도가 높게 나타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즉, 가정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학

교에서 신문을 활용하는 교육은 청소년의 학업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그룹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학업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NIE의 의미와 현황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의 약자로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다. NIE는 학교 수업 속에서 우리 사회 전반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신문을 교수매체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교수법이자 신문과 교육이 동반자로 거듭나는 신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다 [2]. NIE는 교과서 틀 안에서만 얽매이지 않고 이론에만 치중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문을 교재로 함께 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현실과 접목할 수 있고 사회융합에 용이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NIE는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NIE는 매체활용 수업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3]. 한편, 학교 뿐 아니라 가정이나 기타 사회단체 등에서 신문을 교재로 활용하는 학습 방법 또한 통상 NIE로 통칭된다. 이처럼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NIE는 기존의 수동적이면서도 암기식 지식을 지양할 수 있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며 창의적으로 자기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의 변화에 기여한다고[4] 인식된다. NIE 교육은 또 현실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 언어 및 기술을 습득할 또 다른 정보의 원천이 된다[5]. 신문을 통해 습득하는 정보는 교과서나 참고서 등에서 접하는 정보와는 분명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NIE가 등장한 것은 1932년 미국 뉴욕타임즈(New

1 참조. YTN. "부모 재력이 곧 자녀 학벌...성공 사다리 사라지나" (2015. 9. 4)

2 참조. 헤럴드경제 "아이들이 병들어갑니다...올해만 벌써 61명 자살" (2015. 9. 12)

3 참조. 매일경제 "초중고생에게 신문을 읽게 하라, 세계는 지금 NIE 열풍" (2009. 04.05)

York Times)가 신문을 교실에 배포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밀워키 저널(Milwaukee Journal) 등의 신문사는 수업 보조 자료로 이용하도록 신문을 제공하고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병원, 교도소, 기업체 등으로까지 확산되며 그 명칭도 NIE로 정착 되었다[6]. 즉, 미국에서 시작된 NIE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07년 3월 말 현재, 세계74개국이 NIE를 도입하고, 이를 유용한 교육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5년 9월 15일 한국신문협회가 발간하는 신문협회보에 각국의 NIE 사례에 관한 글이 게재된 바 있고 그와 더불어 NIE가 소개됐다[7]. 이후 1994년에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당시 교육부장관 앞으로 NIE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부가 이를 검토하면서 본격적인 NIE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NIE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홍보도 함께 시작됐다. 이에, 신문사 뿐 아니라 교육계와 정부단체 인사들도 NIE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NIE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행보도 진행되었다. 이후, 2003년에 한국신문협회 주도로 NIE 한국위원회가 설립되고 2009년에는 NIE의 확산을 위한 'NIE 관련 신문법 개정'이 발의되는 등 NIE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발판도 함께 마련되었다. 한편, NIE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원하는 'NIE 거점학교 운영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 NIE의 교육효과

NIE 방식의 교육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게 된 이유는 NIE가 교육의 유용한 도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NIE가 도입된 이후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IE 교육 사례, 그리고 NIE의 교육적 효과를 주제로 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8]. 이외에도, 학교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교사들의 경험담, 전문가 및 학계가 제시한 NIE 효과 등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보도는 대개, NIE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다양한 주제와

학생 주도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NIE가 구체적으로 유발하는 교육적 효과와 더불어 실질적 학습 능력 및 부차적인 효과 측면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황유선 등[8]에 따르면 언론에서 보도된 NIE 주요 효과는 사고력 증진, 학업 성취도 증가, 논술 및 지적능력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써,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경향신문, 2009. 12. 21.), NIE를 활용하면 소설이나 시 등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중앙일보, 2009. 1. 13.) 보도된 바 있다. 이렇듯, NIE 방식을 활용한 수업이 실제로 학업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기사들은 NIE 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NIE의 교육효과에 대한 주목도를 더욱 높였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각종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효과는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는 논의 역시 이루어져 왔다. 신문 등의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확장되며 사회적 관계 형성 뿐 아니라 당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능감 상승으로까지 연결된다[9]. 또 미디어를 활용한 언어 교육은 어휘력과 회상능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과목에 대한 흥미까지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11]. 이런 점에서, NIE는 해당 과목이 다루는 주제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학습 욕구까지 향상시킨다고 밝혀졌다[12]. 또 NIE 수업은 초등학생은 물론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업 흥미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15]. NIE 수업 진행은 특정한 교과목의 흥미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1. NIE 수업은 과목 흥미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NIE는 인성 및 가치관 함양과 진로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활용되었다[5]. 가치관의 함양은 단순히 교과서를 통한 학습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며 사회문화적 측면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의 유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학생들은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수업을 진행할 때 해당 주제에 관련한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6]. 바로, NIE가 학생의 수업 참여도 및 수업 집중력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13-15]. 즉, NIE 방식은 직접적인 학업 능력 뿐 아니라 학생이 학업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에, NIE 방식은 해당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연구가설2. NIE 수업은 학업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학술적으로도 NIE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선 사고력 증진과의 연관성이 밝혀졌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학생들의 독서 능력 및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다양한 지식의 습득능력을 배양하는 등 기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종합력 사고력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다[17]. 이와 같은 사고능력의 함양은 곧 학습 과정에 필요한 낮은 사고력과 높은 사고력을 두루 키워내는 것보다 직결된다[18]. 황치성과 정완규[5]도 NIE는 학업성취도 및 사고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고, 옆 나라 일본에서도 NIE는 비판적 사고능력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19].

이와 더불어, 꾸준히 수행하는 NIE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20]. 이는 신문을 읽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글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어휘력 역시 강해지며 다면적 사회 양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 언론사들은 NIE를 활용해 수준 높은 읽기 훈련과 어휘력 향상에 체계적인 효과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21]. 즉, 신문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교과서가 되며 사회문제 뿐 아니라 과학, 수학,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읽기 및 문장 능력을 높인다고[22] 평가되었다.

NIE는 인지능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이다. 최상희[2]는 NIE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자료들이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하고 복잡한 사상을 정돈하여 단순화함으로써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NIE를 활용한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인지와 환경에 대한 정의규정 및 행동하는 능력 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밝혀졌다[12]. 즉, NIE 방식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과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의 각 현상을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지능력 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사고력이나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및 인지력 향상은 학업 효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NIE와 교육효과 간의 긍정적 관계가 밝혀진 바 있다. NIE 방식의 수업을 들은 학습은 그렇지 않은 학습에 비해 사회과목 성적이 더 우수했고[23]. 수학과목을 두고 평가했을 때에도 NIE 수업을 들었을 때 정답 서술 능력이 더 뛰어났다[24]. 즉, NIE는 궁극적으로 성적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3. NIE 수업은 과목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NIE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연구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수행했다. 각 학교 집단 별로 NIE를 수행하는 학급 실험집단과, NIE를 수행하지 않는 학급 통제집단을 두었으며 두 집단 간의 교육 효과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학급 간 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학급 성적을 통제하지는 않았다.

중학생 집단에 대한 실험은 인천 소재의 남녀공학 중

학교 1학년에서 실험집단으로서 한 개 학급(N=39), 통제집단으로서 한 개 학급(N=38)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과목은 도덕과목이었으며 도덕 교사가 수립한 동일한 교안을 바탕으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NIE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업을 실시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동일한 수업이 주 5회 이루어졌고 총 21차시 수업이 진행되었다.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실험은 서울 소재의 남자 고등학교 2학년 두 개 학급을 대상으로 수행했다. NIE 수업을 실시하는 실험집단 한 개 학급(N=30)과 NIE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통제집단 한 개 학급(N=27)을 구분했다. 과목은 사회과목이었다. 사회수업은 주 3회씩 총 17차시가 진행되었다.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에 참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은 각 과목에 대한 NIE 방식의 수업 교안과 일반 수업 교안을 작성했다. 교안은 수업 차수별로 각각 작성됐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의 수업 내용은 모두 동일하며 실험집단에 대한 NIE 수업은 신문을 활용하도록 했다. 실험 참여교사는 NIE 수업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NIE 관련 재교육을 받아왔던 교사로서 신문을 활용한 수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음,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했다. 사전조사는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를 통해 과목 흥미, 학업태도, 및 간단한 어휘력 테스트를 실시했다. 사전조사 서베이는 실험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두 명씩 각 학급에 들어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수거했다. 사후조사 역시 실험 수업 차수가 모두 끝난 직후, 동일한 방식의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한편, 어휘력 테스트는 ‘고’로 끝나는 단어, ‘이’로 시작되는 단어, ‘도’로 시작되는 단어를 각각 2분이라는 시간 동안 기재하도록 했으며 정확한 단어의 개수를 총합했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휘력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양 집단 간 어휘력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과목 성적 비교를 위한 리콜 테스트(recall test)는

담당 교사가 난이도를 조절하여 객관식(상,중,하)과 주관식(중,상) 문제를 양 집단에 동등하게 출제한 뒤 이를 평가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했다.

실험에 응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실험 대상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중학생		
성별 (n=75)	남	여
	35명	40명
평균(표준편차)		
나이 (n=77)	14세	
가족 수 (n=76)	4.17 (0.72)명	
형제 수 (n=75)	1.17 (0.62)명	
사교육 정도	학원 수 (n=74)	1.47 (1.23)개
	과외 수 (n=73)	0.59 (0.78)개
부모 학력	부 (n=73)	3.23 (0.97)
	모 (n=74)	2.96 (0.91)
고등학생		
성별 (n=55)	남	여
	55명	0명
나이 (n=55)	18세	
가족 수 (n=54)	3.96 (0.75)명	
형제 수 (n=54)	1.02 (0.69)명	
사교육 정도	학원 수 (n=54)	0.56 (0.90)개
	과외 수 (n=53)	0.32 (0.58)개
부모 학력	부 (n=53)	2.43 (0.87)
	모 (n=53)	2.25 (0.85)

주. 위의 인구통계학적 표에서 총 인원은 중학생은 77명, 고등학생은 55명이었지만 결측치 때문에 각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다르다.

2. 측정척도

과목흥미 변화는 실험 실시 이전과 이후의 사전 사후 변화 정도를 측정했다. 중학생 집단에서는 도덕과목,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사회과목의 흥미 변화를 확인했다. 측정 항목은 ‘나는 (도덕/사회) 과목이 재미 있다’, ‘나는 (도덕/사회) 과목을 좋아한다’, ‘나는 (도덕/사회)를 잘 한다’ 등의 3개 질문이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해 측정했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과목 흥미 사전조사(Cronbach’s alpha: 중학교-실험집단 0.790, 통제집단 0.876; 고등학교-실험집단 0.943, 통제집단 0.930)와 사후조사(Cronbach’s alpha: 중학교-실험집단 0.817, 통제집단 0.818; 고등학교-실험집단 0.956, 통제집단 0.919)를 NIE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에 대해서 모두 확인함으로써 과목흥미 변화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했다.

학업태도 변화의 측정은 학생들이 과목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 및 자세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다’, ‘살아가는 데 공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공부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다’, ‘학교 공부는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된다’, ‘학교 생활에서 공부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학생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의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했다(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실험 사전(Cronbach’s alpha: 중학교-실험집단 0.658, 통제집단 0.629; 고등학교-실험집단 0.613, 통제집단 0.781)과 사후(Cronbach’s alpha: 중학교-실험집단 0.710, 통제집단 0.761; 고등학교-실험집단 0.615, 통제집단 0.797)의 학업태도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각각 조사함으로써 NIE 수업 실시 후 학업태도 변화를 비교 했다.

NIE를 통한 교육적 효과로서 과목성적 향상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이 끝난 직후 실험 기간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해 간단한 리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출제는 과목을 진행한 담당 교사가 맡았으며 문제를 상(적용), 중(이해), 하(지식)로 나누었다. 난이도 상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표와 사례를 분석하여 응용이 가능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난이도 중은 배운 지식을 얼마나 알고 파악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난이도 하는 단순히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로 구성됐다. 중학교 집단의 경우, 난이도를 적절히 배분하여 객관식 10문항, 주관식 4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테스트를 구성했다. 고등학교 테스트 역시 난이도를 배분하여 객관식 7문항, 주관식 6문항으로 총 13문항을 제공했다. 서술형 문항은 완벽하게 답을 기재할 경우 2점, 부분 정답 처리는 1점, 틀릴 경우 0점으로 코딩했다.

IV. 연구 결과

1. NIE 수행과 과목 흥미

수업 진행 이전과 이후의 교과 흥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중학생 집단의 사

후 교과 흥미 변화는 NIE 수업을 진행한 실험 집단 학급과 일반 수업을 진행한 통제 집단 학급 모두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했다($t = 2.03, p < .05$).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실험 사전과 사후에 각각 교과 흥미도를 측정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표 2], 사전과 사후 교과 흥미도 변화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남자 고등학생들에 있어서 교과 흥미도에 대한 NIE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다.

표 2. NIE 수업여부에 따른 교과 흥미 변화

		사전 조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학생	실험 집단	3.23 (0.53) (n = 39)	3.65 (0.98) (n = 39)	2.03*
	통제 집단	2.79 (0.99) (n = 38)	3.19 (0.72) (n = 38)	2.03*
고등학생	실험 집단	2.77(1.34) (n = 29)	2.82(1.26) (n = 30)	-.15
	통제 집단	2.82(1.10) (n = 26)	2.78(1.09) (n = 27)	-.19

주. *p(.05)

2. NIE 수행에 따른 학업태도

학업 태도의 변화도 NIE 실험 실시 이전과 이후 모두 측정하였고 [표 3]에 제시하였듯이 중학생의 학업에 대한 태도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사전 사후 학업태도 변화 정도 역시 중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표 3. NIE 수업여부에 따른 학업 태도 변화

		사전 조사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학생	실험 집단	3.32 (0.54) (n = 39)	3.30 (0.47) (n = 39)	.19
	통제 집단	2.96 (0.71) (n = 38)	2.94 (0.78) (n = 38)	.13
고등학생	실험 집단	3.02(0.64) (n=29)	3.02(0.65) (n=30)	-.030
	통제 집단	2.70(0.88) (n=26)	3.02(0.80) (n=27)	-1.357

3. NIE 수행에 따른 학업 성적

과목 성적의 차이는 리콜 테스트 난이도에 따른 상, 중, 하 별로 측정하였다. 중학생 집단의 평가를 위한 문

제에서 객관식은 상, 중, 하의 난이도가 존재했고 주관식 문항에서는 중과 상의 난이도만 있었다. 다음의 [표 4]에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했고 그 결과, 중학생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문항은 객관식의 지식을 묻는 난이도 하의 문항뿐이었다($t = 2.07, p < .05$). NIE 수업을 받은 실험 집단 학습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의 점수보다 높았다.

표 4. 중학생의 집단별 평가 결과의 차이

난이도		실험 집단(n=39)	통제 집단(n=3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객관식	지식(하)	1.67 (0.53)	1.34 (0.81)	2.07*
	이해(중)	2.34 (0.99)	2.34 (1.19)	-0.45
	적용(상)	1.87 (0.86)	1.68 (0.93)	0.92
주관식	이해(중)	2.08 (1.13)	2.00(1.20)	0.29
	적용(상)	0.56 (0.79)	0.61 (0.75)	-0.23

주. * $p < .05$

고등학생의 집단별 차이 역시 t-test를 실시해 확인했고 난이도별 평가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문항은 객관식 문항 중 객관적 지식을 묻는 난이도 하의 문항($t = 2.45, p < .05$), 주관식 문항 중에서는 객관적 지식을 묻는 난이도 하 문항($t = 4.06, p < .001$) 및 이해력을 묻는 난이도 중의 문항($t = 2.41, p < .05$) 등이었다. 이들 문항의 경우 NIE 수업을 실시한 실험 집단 학습의 점수가 그렇지 않은 통제 집단 학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고등학생의 NIE 실시여부에 따른 난이도 별 평가 결과의 차이

난이도		실험 집단(n=30)	통제 집단(n=27)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객관식	지식(하)	3.10 (1.32)	2.30 (1.14)	2.45*
	이해(중)	0.23 (0.43)	0.44 (0.51)	-1.69
주관식	지식(하)	1.50 (1.31)	0.37 (0.74)	4.06***
	이해(중)	0.17 (0.38)	0.00 (0.00)	2.41*
	적용(상)	0.23 (0.50)	0.15 (0.53)	0.62

주. *** $p < .001, *p < .05$

과목평가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NIE 방식의

수업이 갖는 잠재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 항목 중에서 난이도 '상' 보다는 난이도 '중'이나 '하'에서 NIE 실시 학습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지만, 주관식의 난이도 '상' 문제에서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실험 집단의 점수가 다소나마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연구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4. NIE 수행과 과목 흥미, 학업 태도, 및 학업 성적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에 이어, NIE 수행 이후 과목 흥미,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고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했다.

표 6. 과목흥미, 학업태도, 학업성적의 상관관계

중학생			
통제집단 실험집단	과목흥미	학업태도	성적
과목흥미	1	.47**	.14
학업태도	.39*	1	.14
학업성적	-.06	-.01	1
고등학생			
통제집단 실험집단	과목흥미	학업태도	성적
과목흥미	1	.65***	.08
학업태도	.37*	1	-.10
학업성적	.38*	.46**	1

주. *** $p < .05, **p < .05, *p < .05$, 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

고등학생의 상관관계 결과에 주목해 보면, NIE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에서만 학업성적이 과목흥미($r = .38, p < .05$) 및 학업태도($r = .46, p < .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E 방식의 수업을 수행할 경우 과목에 대한 흥미와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됨으로서 학업성적 역시 향상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V. 결론

분석 결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과목 흥미는 NIE 수업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중

학생 그룹에서는 향상됐으나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곧, NIE 방식이 아닌 수업이라도 충분히 학생들의 흥미를 고양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NIE 방식만을 절대적으로 고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학생 군에 대해서는 과목 흥미 상승 이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 NIE 방식을 통한 수업은 학업 성적 향상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NIE 수업은 결국 학생들의 과목 흥미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 특히 과목 흥미는 중학생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학습을 인식하는 정서적인 부분을 함양하는 데 NIE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나아가, NIE를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경험함으로써 과목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공부의 습관을 닦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에게 NIE는 학습 흥미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교사들의 인식도 있다[8].

학업태도에 대한 NIE 효과 분석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NIE 수업을 통한 학업태도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태도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남짓의 NIE 실시만으로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바꾸거나 혹은 그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NIE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호기심 등이 저하되지 않는 효과가 있었고[16] 과학 과목에 대한 태도 역시 NIE 수업을 실시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25]. 또, 중고등학생의 경우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진실추구나 개방적 사고 및 탐구성 등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기도 한다[26]. 나아가,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미디어 활용 교육이 효율적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상황이다[27]. 즉, NIE 수업은 해당 과목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이다. 개별 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학업태도가 누적된다면 결국 전반적인 학업 태도 역시 향상되기 마련이다. 비록 본 연구

에서는 광범위한 차원에서 학업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신문 활용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과목성적은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의 문제에서 NIE 수업 방식을 채택한 학급의 점수가 더 높았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 NIE 수업을 진행한 그룹은 객관식 난이도 하의 문제에 대한 점수가 더 높았고, 고등학생들은 NIE 수업을 진행한 학급이 객관식 난이도 하, 주관식 난이도 하, 중 등에서 더 높은 성적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생 집단에서 NIE 수업이 주관식 문항에 대한 학업 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신문에서 소개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각종 현안과 그에 대한 심층 해설을 읽고 분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객관식 난이도 하 문항에 대해 NIE 수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NIE 방식의 수업 진행 시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신문을 통해 배운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 폭넓은 사고력을 체화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NIE가 학교 성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NIE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좀 더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활용된다면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IE 수업을 통해 과목 흥미 및 학업 태도가 학업 성적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NIE의 효과를 시사하는 바이다.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NIE를 수행함으로써 학생의 과목에 대한 흥미 및 학업태도가 좋아진다면 필연적으로 학업 성적은 좋아질 것이며 이들 변인 간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NIE 방식은 이들 변인이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장기적인 NIE는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학습 방식이 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관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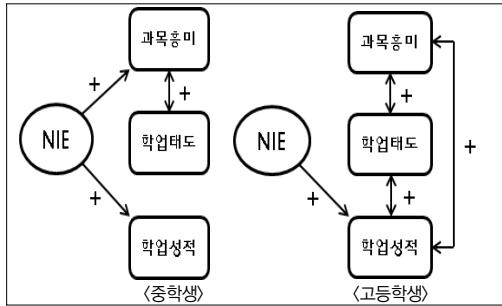


그림 1. NIE와 주요 변인 간의 관계

NIE의 효과를 두고 당사자들인 교사 및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황유선 등은[8]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했는데, 교사들은 지속적인 NIE가 학업에 뒤쳐진 학생들조차 포함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으며 신문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도 높아진다고 언급했다. 또 논리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훨씬 쉽고 재미있게 익힌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또 학생입장에서는 NIE가 간접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과서에서만 보던 피상적이고 어려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장기적으로는 폭넓은 지식을 쌓는 기회가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신문을 매개로 교사와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짐으로써 수업 참여가 수월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본 연구는 NIE가 학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NIE가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열풍과 교육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신문을 활용한 교육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고양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해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NIE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NIE 교육 체계가 바로서고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산학연계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이라는 매체를 교육과 결합해 교수 및 학습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NIE를 통해 신문

산업 영역에 던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6]. 신문 산업 분야에서는 NIE가 미래의 신문 독자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식해 왔다[5]. 즉, 신문을 활용한 교육으로써 NIE는 공교육의 효율성 향상 및 산업적 측면에 대해 유익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NIE 수업 효과를 위한 실험 기간이 두 달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학업 성적 향상 효과 뿐 아니라 교과에 대한 흥미나 학업 태도 등 보다 근본적인 학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장기적인 NIE 수업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과목별 NIE 효과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과 사회과목을 대상으로 NIE의 다양한 효과를 검증했다. 하지만, 어휘력과 관련된 국어 과목이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한 역사 과목, 문화 예술과 연관된 음악이나 미술 등 여타의 과목에 대해서도 NIE 방식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 지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실험이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별에 의한 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이와 같은 사안들이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2013.
 [2] 최상희, “사회와 학습 자료로써 신문의 효과적인 재구성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6권, 제1호, pp.197-224, 2010.
 [3] 구정화, “초등학생의 NIE 학습유형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관련성,” 사회과교육, 제51권, 제4호, pp.93-108, 2012.
 [4] 김경환, NIE 강사 육성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5] 황치성, 정완규, 신문사 NIE 활성화 방안, 한국언

- 론진흥재단, 2012.
- [6] 황유선, 박진우, 김위근, *NIE와 교육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2011.
- [7] 한국신문협회, *NIE 교사용 가이드북*, 한국신문협회, 2010.
- [8] 황유선, 주민정, 김재선, *NIE 연구학교 운영효과 분석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
- [9] 나경애, 이상식, “청소년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3호, pp.349-373, 2010.
- [10] 박유진, 정동빈, “도식 구성도(graphic organizers)를 활용한 영어 동화 읽기 지도가 유아의 영어 학습 흥미도와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1권, pp.89-131, 2010.
- [11] J. E. Lee and S. Y. Choi, “The effects of using multimedia title on preschool children’s English Listening skills, vocabulary, story recall ability and affective domain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13, No.3, pp.237-252, 2010.
- [12] 마현정, 이시원, “NIE를 활용한 환경 교육이 초등학생의 환경친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25, 2010.
- [13] 김정실, *NIE를 활용한 경제교육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4] 방인숙, *사회과 교육에서 NIE를 통한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15] 임선애, *신문자료를 활용한 문제해결 학습이 초등경제 교육에 미치는 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16] 신금호, “창의적 동작 표현활동 중심 환경 교육이 유아의 정서 지능과 친환경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제66권, pp.25-43, 2011.
- [17] E. F. Deroch, *The newspaper-A reference book for teachers and librarians*, ABC CLIO, 1991.
- [18] 이태중, *NIE 원론 I: NIE 이론과 다양한 활용법*, 도서출판 통기, 2000.
- [19] A. S. Rausch, “Newspaper in Education’ in rural Japan,” *J.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Vol.14, No.2, pp.223-244, 2004.
- [20] 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Newspaper in Education: A guide for weekly/community newspapers*, NAA, 2005.
- [21] <http://nie.seattletimes.com/>
- [22] W. S. Burns, “The newspaper in education program,” Ph.D.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91.
- [23] 정문선, 김양은, 은지용, 최상희, *NIE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 [24] 이종희, 윤혜정, “신문활용교육(NIE)이 수학 학습에 미치는 효과,” *학교수학*, 제2권, 제1호, pp.145-164, 2000.
- [25] 김숙영, “NIE 프로그램이 과학과 관련된 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1998.
- [26] 이원섭,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중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795-809, 2014.
- [27] 최경진,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영상 콘텐츠 활용과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173-181, 2012.

저 자 소 개

황 유 선(Yoosun Hwang)

정희원



- 1996년 : 연세대학교(문학사)
- 2002년 : 연세대학교(문학석사)
- 2010년 : 연세대학교(언론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HCI

김 재 선(Jae Sun Kim)

정회원



- 1981년 : 고려대학교(정치학사)
- 1984년 : 고려대학교(정치학석사)
- 1994년 : 고려대학교(정치학박사)
- 2013년 : 고려대학교(언론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언론이론(정치커뮤니케이션)